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448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燕巖 朴趾源의 北學論과 개혁적 성격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윤 정 희

燕巖 朴趾源의 北學論과 개혁적 성격

Yeonam Bak Ji-Won's Bukhakron and Innovative Personality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윤 정 희

燕巖 朴趾源의 北學論과 개혁적 성격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윤 정 희

윤정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1

Ⅱ. 연암 박지원의 학문과 北學論.....4
1. 18세기 京華學界의 학풍.....4
2. 北學派 형성과 연암의 위상.....8
3. 北伐論 비판과 北學論의 제기.....17

Ⅲ. 改革論의 구조와 성격.....26
1. 社會身分制의 개혁.....26
2. 土地改革論과 農業經營論.....30
3. 商工業 발전론과 海外貿易論.....35

Ⅳ. 맺음말.....39

참고문헌.....42

ABSTRACT

Yeonam Bak Ji-Won's Bukhakron and Innovative Personality

jung-hee yun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Bak Ji-Won who was born into a legitimate *Roron* family in 1737 had in-depth relationships with Dae-yong Hong who was one of the most famous practical scientists at that time in addition to Deok-mu Lee who was an offspring of a concubine, Deuk-gong Yu and Je-ga Park while fighting against outdated ideologies espoused by the upperclass bureaucracy and *Confucian* scholars. He also traveled to China as a members of an envoy while widening knowledge about practical science.

In his book titled *Yeolhailgi*, he pointed out outdated ideology espoused by the gentry of the *Joseon* Dynasty and laughed at incompetent people preoccupied with outrageous moral justification in the form of a novel while arguing for the introduction of sophisticated culture of *Ching* Dynasty including pract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ould be a great help to public welfare.

It aimed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by worsening social contradiction and realize prosperity of the nation. Toward this end, it criticized the theory of the civilized and the barbarians while recognizing the practical innovativeness of Ching culture and the advancement and spread of the Han (Chinese) culture under the rule of Ching.

Bak Ji-Won's theory on practical innovation did not insist abolishing a status system based on realistic view of the world where contradicting reality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as accurately perceived, but he argued for noble men's contribution to industries as intellectual strongly criticizing then men of noble birth who mostly led an idle life. He also argued for *Hanjeonje* aimed to limit land ownership to a certain degree as a part of land reform while pushing for the development of handicraft and trade at home and abroad. It led to *Bukhak* Thoughts that argued for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although it originated from barbarians in an effort to reject blinded worship of Ming Dynasty.

Although the *Bukhak* Thoughts were not applied in reality, but their *Riyonghusaengron* carried a positive significance in that it took the initiative in resolving various contradictions facing the national history.

Ⅰ. 머 리 말

18세기 이래 조선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 세기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거의 복구하는 한편 산간 및 연안의 새로운 경지가 대폭 늘어갔으며 농업 기술도 상당한 정도로 개량되었다.[1] 또한 도고상인을 중심으로 상업 자본이 축적되어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활동도 활발해지고 광공업도 크게 발전하여 시장이 일반화되고 동시에 덕대제가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새로운 양반 즉 신향이 대거 출현한 것이다.

정치상황 또한 붕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 이행하였다. 인조반정(1623) 이래 서인-남인의 붕당정치는 17세기 후반 잦은 환국을 경험하면서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사이 치열한 보복정치가 노론의 일당전제로 귀결하게 된다. 이후 영조 4년(1728) '戊申亂'이라는 미증유의 정란을 통하여 붕당정치는 완전히 파탄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탕평정치론이 정국운영의 기본 틀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2]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술 및 사상의 모색도 활발하였다. 즉 현실 비판과 개혁 나아가서 미래지향의 학풍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학풍은 실사구시를 표방하면서 몇 갈래로 발전하였다. 첫째는 반계 유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성호 이익을 거쳐 다산 정약용이 집대성하였던 토지개혁론 중심의 실학이었으며, 둘째로는 중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 상공업의 발전과 농업기술의 개량 등을 추구한 북학론이었다. 흔히 전자를 남인 계열의 '경세치용학파', 후자를 노론 낙론계의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한다. 또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완당 김정희를 위시한 노론 청류의 실사구시학파가 학술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

1) 김용섭, 『(증보판)조선후기 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5.
2) 이태진 편, 『(개정판)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그동안 학계는 북학론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 '조선학운동'은 『放璚閣外傳』에 실린 소설작품과 『熱河日記』를 통해서 북학론의 선두에 있었던 박지원의 문학을 처음으로 해명하였다. 이는 이미 박지원을 근대적 맹아의식을 가진 문인으로 조명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문학적 분야의 연구가 아직도 주를 이룬다.

박지원의 문장과 학풍을 북학파라는 새로운 학풍으로 규정하며 조선후기 사회발전, 특히 서울의 변모와 상공업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산물로 간주하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박지원과 그의 학문을 도시적 성격을 지닌 근대지향의 학술과 사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유봉학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충실하면서도 조선사상계의 내부적인 자체 변화 특히 노론학계의 분화와 변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학론을 '연암학파'로 규정하며 조선사상계의 내재적 발전의 귀결로 보았다.[3)]

한편 최근의 일본학계는 실학사상 일반에 대한 연구에도 해당되지만 박지원의 사상과 학문에서 '근대적 맹아'를 찾아내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박지원을 포함한 18세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학풍을 反朱子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집권노론 세력의 신진 청류에 의하여 제시된 북학론이 노론의 당론이었던 '華夷論과 北伐論'을 반대하며 그동안 오랑캐라 깔보았던 淸의 문물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된 조선사상계 내부의 동력이나 계기를 소홀하게 취급할 수

3) 박지원에 대한 주요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佑成, 「18세기 서울의 都市的 樣相」, 『한국의 역사상』,창작과 비평사, 1982; 姜東燁 『熱河日記 硏究』, 일지사, 1988; 金明旻 『熱河日記硏究』, 창작과 비평사, 1990; 李鍾周 「熱河日記의 認識論理와 敍述方式」,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학회, 1988; 임형택, 「燕巖의 主體意識과 世界認識」, 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3,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85; 閔斗基「熱河日記의 一硏究」, 역사학보 20, 역사학회, 1963; 劉奉學 『燕巖一派 北學思想硏究』, 일지사, 1995. 안재순, 「朝鮮後期 實學의 主體性問題-박지원, 박제가, 정약용의 北學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40, 동양철학연구회, 2004 ; 김지용, 『朴趾源의 文學과 思想: 古典散策-燕巖의 作品世界』,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4) 기시모토 미오·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역사비평사, 2006, 303쪽.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북학론의 선두에 섰던 燕巖 朴趾源(1737~1805)은 집권 노론 출신이면서도 집권세력의 정치운영론이나 학문경향에 대하여 일찍부터 비판적이었으며, 연행의 경험을 통하여 선진문물의 도입과 신분제의 굴레를 반대하고, 농업 및 상공업의 발전론 나아가 삼정개혁론을 적극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식 및 사상의 근저에 민생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음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벼슬을 갖고 적극 실천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그는 북학파를 연암학파라고 호칭하여도 좋을 만큼, 자신의 사상과 개혁론을 하나의 흐름으로 끌고 나갔던 학술 및 사상운동의 선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은 중국 문물의 적극적 수용과 민생안정을 위한 신분제 개혁 및 상공업의 발전을 추구하였던 북학론의 선구적 사상가이며 문장가였던 연암 박지원의 공부와 사우 및 연행 경험 등을 통하여 북학파가 박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박지원의 현실 타개방안을 농업발전론·신분제 개혁사상·상공업 발전론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박지원 학문 나아가서 북학론의 시대적 의의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5]

이를 통하여 그동안 북학론의 내재적 요인과 계기를 충실하게 정리하면서 박지원 사상의 후생본위 민본론의 성격과 의의를 제시하고, 그동안 실학과 북학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박지원에게서 쉽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개혁론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다.

---

5) 김지용, 『朴趾源의 文學과 思想: 古典散策-燕巖의 作品世界』,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18쪽.

Ⅱ. 박지원의 學文과 北學論

연암이 살던 18세기는 영조와 정조 치세의 탕평정치론이 정국운영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붕당을 이끌어온 사상적 지도자 즉 산림의 영향이 쇠퇴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붕당 갈등 과정에서 위세를 떨쳤던 노론학계의 일관되고 단일한 성리학 이론이 내부의 분화에 따라 湖洛論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론학계는 京鄕分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론 학계의 분화 속에서 京華學界의 학술적 특징을 정리하고 연암의 학문적 연원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1. 18세기 京華學界의 학풍

북학파가 활동하던 18세기는 兩亂 이후의 피폐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농촌사회에서는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17세기부터 보급된 이앙법의 전국적 실시로 농업 노동력이 줄어들고 광작농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를 잃고 상공업 인구로 전락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遊離현상이 빚어졌던 반면 소작경영이나 상업적 농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가는 경영형 富農과 서민지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상업 부문에서는 시전상인 등에 의해 미약하나마 자본 집적이 이루어지고 수공업부문에서는 관영체제로부터 탈피한 민간수공업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17세기 초엽부터 중국을 통해 전래한 서양의 문물이 일부 지식인들을 새롭게 자극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地球說·地轉說 등 천문학설을 중심으로 한 西學의 영향아래 마침내 사상적 전환을 이룩해 갔다. 그들은 주로 서울 부근에 자리 잡고 있던 이익과 그 문하의 일부 남인학자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던 홍대용을 비롯한 노론 낙론계의 학자들로서 주로 서울

의 성중에서 자라나 生活·意識 등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널리 도시 서민층과 통하고 있었다.

특히 북학파들이 주로 활동하던 서울은 18, 19세기 戶數에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며 소비와 수요를 크게 증진시켰고 게다가 각 지방에서 주조된 화폐가 서울로 집중되어 상업과 수공업에 새로운 촉진제가 되었다. 당시 서울의 도시 분위기를 金陵 南公轍은 "서울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8도는 곡식을 가지고 살아간다"[6]고 할 정도로 서울은 주변의 농촌 지역과 선을 그을 수 있는 도시로 성격 짓게 된 것이다.

연암일파의 북학사상은 이러한 서울에서의 성장조건과 도시적 생활경험을 가지는 '京華士族'의 사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경화사족 사이에는 당색을 넘어선 사상적 교류가 성립되고 있었으며 더구나 여기에는 양반 출신의 지식인만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 이제 '士意識'을 가지게 된 '委巷人'들도 포함되고 있었다.[7]

조선후기 사상사에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소위 '北學派'로 불리워지는 이들 가운데 연배나 문벌 면에서 그리고 사상적 영향력 면에서 지도적 위치에 섰던 것은 담헌과 연암이었다. 이들이 北學思想으로 나아가면서 접했을 사상적 배경은 우선 그들의 집안배경과 學派師承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8]

박지원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홍대용은 李縡(1680～1746)의 문인이자 金昌協(1651～1708)의 주손으로 家學을 계승하였다. 이재는 김창협의 문인이요

---

6) 『金陵集』卷10, 「擬上宰相書」, '生民之業, 京師以錢, 八道以穀'.
7)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20~21쪽.
8)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80~81쪽.
담헌과 연암의 학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宋時烈 ─┬ 金昌協 ┬ 李縡 - 金元行 ─┬ 朴胤源
        │        │                ├ 黃胤錫
李端相 ┤        │                └ 洪大容
趙聖期 ┤        └ 魚有鳳 - 李輔天 - 朴趾源
        └ 金昌翕 ┬ 朴弼周 - 沈鼎鎭
                 └ 金錫文 - 黃在中
```

洛論의 대표적 학자로 人物性同論을 지지하였으며 金元行(1702~1772)은 스승인 이재를 따라 낙론을 지지하였다. 홍대용의 스승인 김원행과 그의 영향을 받은 朴胤源(1734~1799) 등이 19세기 중반부터 낙론계를 이끌어 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홍대용의 심성론이 낙론계의 영향을 받았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박지원 역시 祖父가 노론집안 출신이며 박윤원은 홍대용과 동문수학한 처지로 박지원가와는 친근한 사이였으며 박지원의 숙부 박사근은 낙론의 거두였던 박필주의 양자였다. 또한 그의 고모가 김창협의 高弟 어유봉 집안으로 출가하였고 그 자신은 어유봉의 고제이며 사위인 이보천의 사위이기도 하였다. 이보천가에서는 이보천의 伯父 이명화가 김창협의 문인이었으며 仲父 이찬화는 김원행의 아들인 김이안을 사위로 맞아 역시 김창협 및 어유봉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연암은 이처럼 자신 집안과 처가가 모두 낙론의 중심이었던 김창협·어유봉의 집안과 몇 겹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9)

18세기 들어오면서 노론의 주자학자들이 湖洛論爭이란 未曾有의 大心性論爭을 벌이고 김창협계의 김창흡과 어유봉이 낙론의 핵심을 이루며 이후 김원행과 박윤원 등이 낙론을 이끌어 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암의 집안과 학문적 배경은 그들이 기본적 교양으로 지녔던 심성이론이 결국 洛論的일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요인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10)

이처럼 북학파의 학맥은 대체로 서울 주변에 世居하던 京華士族的 문벌가의 후예들로서 18세기 초 노론 안에서 전개된 湖洛論爭(人物性同異論)에서 서울 중심의 洛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호락논쟁의 주제는 사람의 本性(人性)과 物性의 본성이 同, 異를 놓고 이른바 人物性同異의 문제로, 1708년 주자주의 해석이 발단이 되어 이간과 한원진(1682-1751)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다. 이간은 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는데,

---

9)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31~32쪽.
10)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80~81쪽.

그를 지지한 대부분 落下(경기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洛論이라 일컬었다. 반면에 한원진은 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는바, 그를 지지한 학자들이 대부분 湖中(충청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湖論이라 일컬었다.[11]

즉 호론에서는 理同而性異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五常을 모두 갖춘 人性과 그렇지 못한 物性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 논리는 결국 對淸名分論과 심성론의 하나의 논리체계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낙론은 性同而氣異라는 논리에서 人, 物에 모두 五常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人, 物의 차별성을 부정하고, 외면적으로 虎의 仁, 蜂의 忠같은 일덕만이 나타나는 것은 人·物異體에 따르는 기질의 正偏通塞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연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호락논쟁 이전의 정통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인성문제에 주력하던 것에 비하면 이때 物性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사물을 당시 學人이 새로이 설명해 가려 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니와, 그것은 전통적인 심성론 위주의 주자학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심성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은 곧 자연관의 변화와 함께 학문적으로는 象數學이나 經濟, 名物學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그렇다고 해서 담헌과 연암의 경제지학에 대한 관심이 다만 人物性同異의 전개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낙론을 수용했던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 낙론은 단순히 심성론적 관심에서 교조적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 그것이 경제지학의 연구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담헌·연암에게는

---

11) 정옥자, 『朝鮮後期 中華思想 硏究』, 일지사, 2001, 214쪽.
유봉학, 『燕巖一派의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90쪽. 浩論쪽에서는 한원진과 윤봉구 및 그 문도, 洛論쪽에서는 김창흡과 어유봉, 이재, 박필주, 김원행 및 그 문도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栗谷系 학자들로 논리전개 과정에서 浩論은 主氣的 경향에 좀더 충실하려 한 반면 洛論은 오히려 主理的 경향을 가미하고 있다.

12) 유봉학, 『燕巖一派의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90~91쪽.

김창협·김창흡에게 영향을 주었던 조성기 계통의 경제지학이나 김창흡의 문인으로 낙론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던 김석문 계통의 상수학이 그들이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것 같다.[13]

홍대용에 이르러서는 인물성동론을 기초로 인물성균등의 논리를 끌어내고 여기서 다시 이용 대상물로서의 物이라는 새로운 物論에까지 나아갔으며 박지원 또한 인물성균등을 토대로 이용후생론이나 경제지학의 연구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14]

인간 사물의 本性이 같은가, 聖人과 凡人의 마음이 같은가 등을 둘러싼 湖洛論爭은 단순히 성리학 내부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도시의 성장, 농민층의 성장과 신분제의 동요, 새로운 정치세력과 사상경향의 대두 등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한 노론 집권층의 사상적 대응의 성격이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낙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 聖人과 凡人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經濟之學과 象數學을 중시함으로써 당시 성장하는 일반민의 실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는 입장이었다.

박지원은 낙론의 이러한 특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청의 선진문화에 영향을 받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華夷論을 극복하고 청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배워와 낙후된 조선사회를 개혁하자는 북학을 제창하였다.

2. 北學派 형성과 연암의 위상

박지원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이 높던 명문대가로 조선의 개국공신 朴訔(1370~1422)의 13대 손으로 선조들이 대대로 대사헌, 판서, 참판 등의 관직을 지냈고 그의 조부 朴弼均(1685~1760)은 41세에 예문관한림이 된 후 홍문관 교리, 형조참판, 경기도 관찰사, 사헌부 대사헌등을 거쳐, 지돈녕부사를 지

13) 유봉학, 『燕巖一派의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101쪽.
14) 박성순, 「朝鮮後期 北學思想硏究 경향에 대한 일고찰」, 『史學志』 37, 단국사학회, 2005.

냈고 성품 또한 강직하고 청렴하였다. 이러한 조부의 성품은 박지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가 자랄 때의 집안형편은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부모 없이 자라는데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던 어린 손자를 가엾게 여겨 15세가 될 때가지도 글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늙은 종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던 박지원은 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작품에 두루 이용되었고 할아버지의 사랑방에서 접한 양반관료들의 추악한 이야기들 또한 그의 문학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박지원의 사상형성으로는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우선 연암이 열여섯 살 되던 해 동갑인 全州 李氏 보천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는 결혼 직후 장인 이보천으로부터 『孟子』를 배우고 처숙인 이양천으로부터 『史記』를 배움으로써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양천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 당시 중국 역대 서적들은 물론이고 조선의 역사·지리·경제 등 각 방면의 서적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당시 現實問題로서 兵·農·錢·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다른 하나의 계기는 정조 4년(1780) 5월, 발달된 청조문물을 관람하고 돌아온 사실을 들 수 있다. 그의 나이 40세에 영조가 죽고 정조가 등극하여 국왕의 측근인 洪國榮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화가 燕巖에게까지 미치게 되는데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金川의 燕巖峽(연암의 별호가 燕巖이 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에 은거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44세 때 진하별사인 8촌형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고종의 70수 천추절 축하사절로 연행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利用厚生學·北學論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귀국하여 발표한 기행문『熱河日記』는 고문의 문투를 벗어나 명대 이래의 외전체를 본받은 획기적인 글로서 급기야 정조는

그를 패사소품체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며 고문의 회복을 의미하는 文體反正의 지침을 내리기까지 하였다.[15]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淸의 발달된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허구에 찬 양반사회를 특유의 독설로 풍자하여 당시 사회에 한층 더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한 1786년 정조가 국정을 개혁하면서 실학사상에 호감을 가진 데 부응하여 연암은 그의 나이 50에 처음으로 선공감 감역이라는 벼슬을 음사로 얻게 되었다. 이후 평시서주부, 사복사주부, 한성부판관을 거쳐 안의현감, 부천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키기에 힘썼으며 농업과 농민문제에 대한 개혁안을『課農小抄』와『限民名田議』에 담아 정조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다시 정권을 틀어쥔 노론벽파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邪學 타파를 구실로 개혁적 성향의 관료와 학자들을 탄압했던 辛酉邪獄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實學者들의 공개적 활동이 엄금되고 그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순조 5년(1805) 서울 자택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가장 사랑하는 弟子요 知己였던 朴齊家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의 勞作들은 당시 완고한 양반들의 감정을 사서 禁書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刊行되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지 96년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박지원의 둘째 아들 朴宗采(1780～1835)의 글『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에 보면 아버지 박지원을 그린 초상화가 실려 있다. 훤칠한 풍채, 윤기 흐르는 안색, 쌍커풀진 눈, 크고 흰 귀, 우렁찬 목소리, 다혈질적 기질 등이

15) 김문용 외역, 『韓國人物儒學史4』,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길사, 1996, 1573쪽. 연암이 안의 현감으로 부임한 다음해(1792년) 사회 정서의 문란이 경박한 문체를 추종하는 사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일종의 文風복고 운동인 '文體反正'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조가 주도한 이 정책은 단순한 문예사조의 재정립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산된 국가 여론을 한데 모으고 자신의 탕평정치를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다. 정조는 문풍 변질의 책임을 연암에게 돌리고 기존의 고문체를 사용하여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암을 정조 자신의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깊은 뜻을 알고 연암은 농업관계서인 '進課農小抄文'을 지어 바쳤다.

느껴짐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박지원은 넘치는 활력과 카리스마를 자랑한 인물인데 이제마의 四象醫學에 의하면 '太陽人'에 해당하는 양기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6]

또한, 박지원은 용모가 우람하고 의기가 양양하고 활달하여 천하를 보는데 경륜에 월등하여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듯하였다. 그는 녹록하게 시문을 만들어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유사에게 간구하기를 싫어하였고 특히 술을 몹시 마셔 취하면 귀인들과 거짓학문으로 세상을 기만하는 시류들을 종횡으로 비판하고 배척하였다.

그의 아들 박종채는『過庭錄』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말과 議論이 엄정하셨다. 겉으로만 근엄하고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자나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셨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남의 노여움을 사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외삼촌 지계공이 쓴 제문에 이르기를 '가장 참지 못한 일은 위선적인 무리와 상대하는 일 그래서 소인배와 썩은 선비들이 늘 원망하고 비방했었지'라고 하였으니 가히 아버님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할 만하다.

그가 回想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연암은 화통하여 막힘이 없었지만 위선적이거나 명리를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질병이라 여길 정도의 이 '투명한 열정'이 그의 삶을 계속 주류의 사이클로부터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추동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17] 『過庭錄』에 실린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16)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6, 33~35쪽. 박지원의 초상화는 그의 손자인 박주수의 그림으로 후손 박찬우가 소장하고 있으며 매서운 눈매와 우람한 몸집이 인상적이다.

17)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6, 38쪽.

당시 아버지의 문장에 대한 명성은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래서 과거시험을 치를 때 마다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아버지를 합격시키려 하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눈치채고 어떤 때는 응시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응시하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셨다. 하루는 과거시험장에서 고송과 괴석을 붓 가는 대로 그리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18]

학문이 뛰어났던 燕巖이 과거에 뜻을 두었다면 급제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당시 양반 관료들의 온갖 부패와 타락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는 벼슬길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가 앞섰고 더욱 학문에 전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처삼촌 이양천이 당파싸움에 져 흑산도로 귀양 가고 친구 이희천이 왕실을 모욕하는 중국 서적을 소지 했다고 처형당하는 등 잇달아 친구들의 정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박지원은 예술가의 호방함과 선비의 근엄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싫고 좋음이 분명하여 사람들을 세심하게 가려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상대하였다. 이런 까다로운 처세 때문에 관직에 나가서도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주 불화를 일으켰으며 오만한 독불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무에 임할 때는 기강이 서릿발 같았고 핵심을 잘 파악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절도가 있고 사리를 잘 분별하였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스개로 복잡한 분쟁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청렴결백한 일면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성품으로 "사대부는 물질로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 안의 현감의 임기를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의 선정을 치하하기 위해 縣民들이 송덕비를 세우려 하자 "비문을 세운다면 내가 앞장서 그것을 깨버리고 주모자는 벌주도록 하겠다."며 강경하게 저지하였을 정도였다.

---

18)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 돌베게, 1998, 15쪽.

이처럼 연암은 제도와 질서와는 친해질 수 없는 선천적 기질을 타고나 과거를 포기하고 체제 밖에서 살기로 했지만 외롭게 홀로 산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인간관계는 開放性과 進步性의 정체성을 가진 신분상 서얼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들은 신분을 따르지 않고 벼슬을 하지 않거나 낮은 관직에 있으면서 중국과 일본을 여행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연암 그룹[19]을 형성 했다.

이들 중 洪大容(1731～1783)・李德懋(1741～1793)・李書九(1754～1825)・柳得恭(1749～1807)・朴齊家(1750～1805)・鄭喆祚(1730～1781)등과 평생에 걸쳐 교유하면서 폭넓은 인적・사상적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白塔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덕무의 사립문이 그 북쪽을 향해 마주보고 있었고 그 서쪽에는 이서구의 사랑채가, 그리고 수십 걸음 밖으로 서상수의 서재가 있었으며 또 북동쪽으로 꺽어서 유득공이 사는 집이 나란히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매일 밤 모여 한곳에서 풍류를 다른 한편에선 명상을 또 한편에선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모임을 이어갔다.[20]

박지원은 『放璚閣外傳』「馬駔傳」 序에서 다음과 같이 연암 특유의 우정론을 펼쳤다.

> 벗이 五倫의 끝에 자리를 잡은 것은 결코 낮은 위치여서가 아니라 마치 흙이 五行 중에서 끝에 있으나 실은 四時의 어느 것에 흙이 해당치 않음이 없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가 친함이 있고 君臣이 정의를 지니고 夫婦가 분별이 있고, 長幼가 차례가 있다 하더라도 朋

---

19)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6, 33~35쪽. 52~ 64쪽. 그들은 그저 교양과 사교를 위한 사귐이 아니라 위로 고금의 치란과 흥망에 대한 일로부터 제도의 연혁, 농업과 공업의 이익 및 폐단, 재산을 증식하는 법, 환곡을 반출하고 수납하는 법, 지리, 국방, 천문, 음악, 나아가 초목, 조수, 문자학, 산학에 이르기까지 꿰뚫어 포괄하지 아니함이 없는 새로운 지식인 집합체였다. 구체적으로는 홍대용, 정철조, 서일인, 박제가와 이덕무, 유득공, 서자 출신인 무인 백동수 등이 핵심멤버다.

20)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6, 64~68쪽. 白塔은 지금의 파고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 10층 석탑으로 흰 대리석 탑이라 白塔이라 부르기도 했다.
『貞蕤文集』卷5,「白塔淸緣集序」,'當是時也 炯菴之扉對其北 洛書之廊峙其鹵 數十武而爲徐氏書樓 又折而北東 爲二柳之居也 余乃一往忘返 留連旬月 詩文尺牘 動輒成帙 酒食徵逐 夜以繼日.

友의 믿음이 없다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五倫이 제자리를 잃었을 때에는 오로지 벗이 있어서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벗의 위치가 비록 五倫의 끝에 있으나 실은 그 넷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이다.[21]

이 우정론은 단순한 우정예찬이 아니라 友道를 중심으로 나머지 四倫의 위계를 전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 번 잃으면 결코 다시 구할 수 없는 법'이라고 까지 말했던 이런 윤리는 燕巖만의 것이 아니라 연암그룹에 속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천적 우정론에 공명했다.

이러한 연암그룹의 핵심에 있으면서 박지원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湛軒 洪大容을 들 수 있다. 洪大容(1731~1783)은 북학사상 창출의 동반자로서 연암보다 여섯 살 위지만 평생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다. 홍대용이 영천군수로 있을 무렵 燕巖峽에 은거하고 있던 燕巖에게 '얼룩소 두 마리, 농기구 다섯 가지, 줄친 공책 스무 권, 돈 2백냥'을 보내며, "산중에 계시니 밭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을 테지요. 그리고 의당 책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외다."라며 燕巖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가깝게 교류했던 기록들은 홍대용이 연행을 다녀온 서른다섯 살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데 홍대용이 중국을 여행하고 지었던『會友錄』의 서문을 박지원이 써 준 것을 보아서도 두 사람이 절친했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湛軒書』에 연행 가는 박지원을 청나라 선비들에게 소개한 편지글 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교우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이야기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

21)『燕巖集』卷8,『放璚閣外傳』「馬馹傳」,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敍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 所以居後 迺殿統斯"

연암 朴趾源은 그 문장의 품위와 인망이 弟의 존경하는 처지입니다. 역경에 빠지고 알아줌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기개와 도량이 높고 맑으며 활달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교제하는 정의(홍대용과 청나라 선비들 사이의 교류)를 오래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경애하고 흠모하는 정이 더욱 尊兄에게 있습니다.

이제 한미한 선비의 몸으로 상사인 그 族兄을 따라 집안일을 버려두고 한 필 말로 서행 길을 떠난다고 글로 작별을 고하였는데 그 행색이 속되지 않으니 足下가 한 번 보시면 그 사람됨이 한갓 시문·사장의 뛰어난 재능만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22]

벌써 20대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박지원은 연행 때에는 마흔네 살의 나이로 그 문명이 온 나라에 드날리고 있었기에 홍대용으로서도 박지원을 소개하는 말의 화두를 그의 '문장의 품위'를 존경한다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또한 朴齊家(1750~1805)와도 사상과 비판의식이 크게 일치하여 평생의 지기와 사제로서 친교가 돈독하였는데 박제가가 연암에 관해 쓴 글『白塔淸緣集序』에서 그가 박지원을 찾아간 일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지원 선생이 문장에 뛰어나 당세에 이름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탑 북쪽으로 선생을 찾아 나섰다. 내가 찾아왔다는 전갈을 들은 선생은 옷을 차려 입고 나와 맞으며 마치 오랜 친구라도 본 듯이 손을 맞잡으셨다. 드디어 지은 글을 전부 꺼내어 읽어보게 하셨다. 이윽고 몸소 쌀을 씻어 茶罐에다 밥을 안치시더니 흰 주발에 퍼서 옥소반에 받쳐 내오고 술잔을 들어 나를 위해 祝壽(장수를 기원함)하셨다."[23]

---

22) 김태준, 『위대한 한국인5-홍대용』, 한길사, 1998, 119쪽.

23) 『貞蕤文集』卷五,「白塔淸緣集序」,'聞朴美仲先生文章聞朴美仲先生文章超詣 有當世之聲 遂往尋之于塔之北 先生聞余至 披衣出迎 握手如舊 遂盡出其所爲文而讀之 於是親淅米 炊飯于茶罐 盛以甃皮之玉案 稱觴以壽余 余驚喜過望 以爲千古之晟事 爲文以酬之 其傾倒之狀 知己之感 盖如此.

이 글은 박제가가 이 그룹에 합류하게 되는 순간을 담은 글이다. 1737년생인 박지원이 10여 살이나 아래인 박제가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나와 새로 한 밥에 술을 준비하여 그의 장수를 기원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새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수 쌀을 씻어 茶罐에다 밥을 지어 대접하고 오래 살라고 술까지 권한 것을 보면 너무도 뜻밖의 대접에 박제가가 놀랍고도 기뻐서 이 세상엔 없을 盛事로 여긴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박지원이 淸論을 견지하는 사류로서 處士的 생활을 영위하다가 뒤늦게 관료로 진출하면서 엮어 내었던 교유의 범위와 성격은 다음 시기 연암의 문생과 그 후배들이 취하였던 정치적·사상적 모색의 단서가 되었다.

兪彦鎬(1730~1796)는 박지원의 연암협으로의 피신을 주선하여 연암을 보호하고 또 그를 出仕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벗이었고 이재성은 연암의 처남이자 벗으로 오랫동안의 접촉에 연암의 생활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였으며 정조 때 노론 청류의 지도자였던 윤시동(1729~1797)은 연암의 '少時朋儕'였다.

또한 그의 후배들 가운데는 연암의 큰 기대를 모았던 이서구와 안동김씨 세도의 핵심이였던 남공철, 서유구등이 있었으며 안동김문의 김희순, 김근순, 김매순과 이명연, 나열, 유한집, 유윤림, 유화 등의 士人도 있었다. 그밖에 신분적 제약 때문에 고위관직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정조 주변에서 이서구와 함께 四家로 그 명성을 떨쳤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이 그의 제자로 입문하였고 규장각 검서관들로 성해응, 서상수, 이희경, 이희명, 이공무, 정축, 김용행 등의 中庶 출신 학자들이 함께 연암을 추종하면서 서울의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정조대의 청장년기를 보내며 서울의 그리 넓지 않은 교유권 속에서 성장하고 유사한 사상적·학문적 편력을 가졌던 연암일파는 순조대 이후 세도정국 속에서 나름의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세도가나 실무적 고위관료로까지 부상함으로서 北學을 유행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4]

3. 北伐論 비판과 北學論의 제기

中華思想의 이론적 근거는 華夷論이다. 고대 중국인에 있어서 세계는 천하와 사방으로 양분되며, 천하는 한민족의 지배자인 천자의 도덕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요, 그 주변은 천자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이민족, 즉 夷・蠻・戎・狄이 살고 있는 사방이고 송이 여진이나 몽고에게 당장은 무력으로 당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며 한족은 영원하다는 인식이었다.[25]

이 논리는 입국체제와 입국규모 모두 송나라를 모범으로 삼았다고 하는 조선사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16세기 말 남쪽 오랑캐로 여겼던 일본과 17세기 초 북쪽 오랑캐로 인식했던 여진에 의해 40여년 간격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고 나자 조선후기 사회는 이 華夷論에서 양란 극복의 시대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 지도이념으로 창안된 논리가 尊周論과 北伐論이었다.

화이론에서 華論이 중화문화 보존논리인 尊周論으로, 夷論이 오랑캐 배척 논리인 北伐論으로 전개되었다.[26]

17세기 전반 명나라와 조선에 가해진 오랑캐의 침략으로 조선이 가장 선진문화국으로 칭송하였던 명이 여진족인 청에 의해 1644년 멸망하고 조선 내부에서는 임진왜란 때 명으로부터 입은 '再造之恩' 에 대한 보은과 삼전도에서의 치욕[27]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는 北伐論이 대세를 이루어 尊周攘夷 사상

---

24)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153~160쪽.

25) 박충석・유근호 공저, 『朝鮮朝의 政治思想』, 평화출판사, 1980, 100쪽.
본래 '中華'라는 말은 夏・華・華夏・中夏・諸夏라는 말과 더불어 한대이전 중국 민족국가 형성기에 있어서 한민족이 자신들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칭으로 사용한 말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인들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학자들의 생각이기 하였다. 퇴계 이황은 "하늘에는 두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왕이 없다. 춘추의 大一統은 곧 천지의 常經이요 고금의 通義이다. 대명은 천하의 宗主이니 변방의 모든 나라들이 臣服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26) 정옥자, 『朝鮮後期 中華思想 硏究』, 일지사, 2001, 209쪽.

27) 1637년(인조15년) 인조가 삼전도에서 城下之盟을 맺어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할 것을 맹세한 일.

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광정함은 周室을 존중하고 이적을 물리쳐 모두 천하를 바르게 함이다.(匡正也 尊周室攘夷狄 皆所以正天下也《論語集註》〈헌문〉1).

즉 천하를 광정하는 일은 정통인 주나라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쳐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으로 공자가『春秋』를 지을 때 기본원리로서 춘추대의로 표방되었다. 여기서 周室이란 중화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명나라의 멸망은 중화문화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오랑캐 청이 인륜을 짓밟고 중원을 차지한 상황에서 오직 조선만이 중화문물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기 조선사회가 차용한 尊周論은 周室 → 明 → 朝鮮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시킴으로써 조선이 곧 中華라는 朝鮮中華主義를 성립시켜 이전의 小中華 의식이 조선중화주의로 전환되었다.

17세기 중반 국가대의로서 제창된 북벌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민정신이 해이해지자 '復讐雪恥'보다는 '內修外攘'을 통해 자강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치중하게 되고 그것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尊周論을 강화하는 장치인 大報壇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보단은 '明亡一週甲' 즉, 명이 망한지 60년이 되는 해를 강조하면서 왜란 때 '再造之恩'을 베푼 명의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제사지낸 것으로 처음 송시열에 의해 충북화양동 계곡에 쌓은 제단을 말한다. 이것은 중화문화의 수호자로서의 조선이 명나라의 적통이라는 인식하에 外攘에서 內修로 방향전환을 꾀하면서 自强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노론계 중에서도 송시열 직계 제자들에의해 적극 추진되었으며 소론계는 소극적이었다.[28]

그러나 조선중화주의는 조선만이 중화문화를 가진다는 확인 위에 서 있는 논리였고 또 그럴 때만이 가능한 논리였다. 이후 담헌·연암에게서처럼 중화

28) 정옥자, 『朝鮮後期 中華思想 硏究』, 일지사, 2001, 211~212쪽.

문화의 절대성이 의심되고 조선 문화의 낙후성이 인정될 때 그리고 청의 문물이 긍정될 때 그 논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논리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북벌대의를 뒷받침하던 강고한 華夷論은 18세기 이후 사상계의 주도권을 쥐었던 노론 지식인의 일각에서 기존의 華夷論의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수정하여 그 위에서 청조문물 수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

담헌은 공자가 九夷에 살았더라면 域外春秋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역외춘추론을 통해 조선도 춘추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피력 하였다. 그리하여 華·夷 각각을 대등한 주체를 긍정하면서 '華夷一也'의 논리를 피력하여 적어도 논리적으로 '朝鮮=夷'의 주체가 긍정되면서 동시에 '淸=夷'의 주체도 긍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이론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다. 다만 홍대용의 華夷論에 대한 수정은 아직은 조선의 위치를 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자성적 의의를 가지는 데 머무른 것이었으며, 청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와 그에 입각한 청문물 수용의 논리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지원에게서는 홍대용의 이론이 수용되고 재구성됨으로서 북학론이 고창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청의 발전된 학문이나 문물에 대한 견문으로부터 우리의 낙후된 학문·문물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데서 華夷論에 수정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지원은 『熱河日記』에서 北學論을 다음과 같이 펴고 있다.

> 천하를 영위하는 자가 진실로 民에 이롭게 하고 나라를 후하게 하려면 비록 그 법이 혹시 이적에서 나왔더라도 장차 그것을 취하여 본받을 것인데 하물며 삼대 이후 성제·명왕과 한·당·송·명의 고유한 옛 전법임에랴. 성인이 『春秋』를 지으심은 진실로 존화양이를 위한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이적이 중국을 어지럽힘을 분하게 여겨 중화의 것으로 가히 높일

만한 것까지 함께 물리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 사람이 참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고자 하면 중화의 남아 있는 제도를 모두 배워 우리 풍속의 우둔하고 융통성 없는 면모를 변하게 하는 일만한 것이 없으니, 耕・蠶・陶・冶로부터 通工・惠商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9]

'북학'이란 용어는 『孟子』에서 許行의 農家思想을 비판하여 진양과 같은 남만의 지식인이 '周公仲尼之道' 곧 유가사상을 중국에서 배운다고 하는 含意를 가지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박지원과 박제가에서 '북학'은 중국을 배운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였으나 청이 계승한 '중화의 남아있는 제도'(中華之遺法)를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었다.[30]

박지원은 尊華攘夷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가히 높일 만한 중화문화의 실질'(中華可尊之實)까지 물리칠 수는 없는 것이며 청이 중화를 '빼앗아서 그에 웅거하는(奪而據之)' 것으로 봄으로써 중화문화를 배우는 것은 청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31] 이러한 비판적 논리는 그 유명한 「許生傳」에도 보인다.

소위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이맥의 땅에 나서 스스로 사대부라고 하니 건방진 놈들이 아니냐? 겉옷이나 속옷을 순전히 희게 입고 있으니 이는 喪中에 입는 옷이고, 상투를 송곳처럼 뾰족하게 움켜 매는 것은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니 무엇이 예법이란 말이냐? 옛날 번어기(樊於期)[32]는 사사 원한을 갚으려고 머리 잘리기를 아끼지 않았고 武靈王은 자

29) 『熱河日記』<馹迅隨筆> "爲天下者 苟利於民 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而況三代以降 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聖人之作春秋 固爲尊華而攘夷 然未聞憤夷狄之猾夏 竝與中華可尊之實 而攘之也 故 今之人 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椎魯 自耕蠶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焉'.

30)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14쪽.

31)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136쪽.

32) 번어기는 秦나라 장수였으나 죄를 지어 燕나라에 亡命하였다. 秦에서 번어기의 머리에 懸賞을

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호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3)

또한 박지원은 허생의 입을 빌려 진정으로 청에 대해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상투를 자르고 오랑캐 복장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간편한 옷차림으로 군사훈련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대부들은 한갓 예의를 앞세워 입으로만 春秋大義를 외쳐 댄다는 것이다. 34)

구체적으로 그는 소설「虎叱」에서 虎로 비유된 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면 확고한 것으로 긍정하면서도 그 强勸을 비판하고, 북곽선생을 통해서는 漢族・漢文化의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헛된 문화자존의식에 안주하던 조선지식인과 조선의 상황을 그에 투영시켜 하나의 체계 속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청 문물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연암의 연행의 경험을 통한 청 문물의 자극과 낙후된 조선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북학론을 고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지원이 청 문물에 대한 개방적 수용의 자세와 주장은 조선을 청국과 같은 문명국가로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본위의 사고만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厚生論이 바탕에 있었다.

전통적인 후생론은 『書經』「大禹謨」에 나온다. 즉 백성을 기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九功은 水・火・金・木・土・穀의 六府를 잘 다스리는 일과 正德・利用・厚生의 三事를 조화시키는 일이다.35)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 관점은 '正德'이 있은 후에 '利用과 厚生'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을 이를 다시 보았다. 즉, '利用'이 있은 다음에 '厚生'이 있고, '厚生'이 있

걸었으므로 燕太子 丹이 秦에 들어가 秦王을 죽이려 했을 때 번어기는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베어주었음.

33) 『燕巖集』卷12,「熱河日記」, <玉匣夜話>, "所謂士大夫, 是何等也 産於彛貊之地 自稱曰士大夫 豈非騃乎 衣袴純素 是有喪之服 會撮如錐 是南蠻之椎結也 何謂禮法 樊於期欲報私怨, 是有喪之服 會撮如錐 是南蠻之椎結也 何謂禮法 樊於期 欲報私怨 而不惜其頭 武靈王 欲强其國而不恥胡服.

34)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177쪽.

35) 김인규, 「利用厚生論의 理論的 基盤과 展開樣相」, 『한국사상과 문화』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은 후에 비로소 '正德'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경제 및 사공의 구체적 공력이 발휘되어야 도덕적 인간형을 위한 정덕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36)

이러한 박지원의 논리는 '義理의 실천'이라는 도덕적 가치 자체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성리학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박지원이 경제적 이익 혹은 활용이라는 이용에만 중심을 두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利用'은 '厚生'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었다.

또한 박지원은 전통적인 오행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성리학에서는 오행을 생성의 원리로 보고 있었는데 박지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다음의 사료가 말해준다.

> 五行이란 하늘이 부여하고 땅이 쌓은 바로써 사람이 힘입는 것이다. 禹가 차례를 매기고 武王과 箕子가 문답한 바를 보면 그 사업은 正德・利用・厚生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세상이 중화하고 만물이 생육되는 직무일 뿐이다.37)

즉, 하늘이 부여한 오행이 세상의 평화와 생명의 발육을 돕는 재료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五行論은 오행의 성질을 잘 헤아려 그 성질을 알맞게 이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의미의 삶의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용후생을 통한 삶의 안정은 바로 正德의 문제가 구현되는 터전이다. 성리학자들이 '正德'이 바로서면 '利用・厚生'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先本後末의 사고를 했음에 반해 북학파들은 방법상 '利用・厚生'을 통한 '正德'의 실현이라는 先末後本의 사고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38)

당시 燕行을 다녀온 선비들은 중국의 壯觀을 말하라고 하면 上士는 '학자

---

36) 『熱河日記』, 「渡江錄」,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正其德矣 不能利其用而能厚其生 鮮矣 生旣不足以自厚 則亦惡能正其德乎'.

37) 『燕巖集』卷1, 「洪範羽翼序」, '夫五行者 天之所賦 地之所蓄 而人得以資焉 大禹之所第次 武王箕子之所問答 其事則不過正德利用厚生之具 其用則不出乎中和位育之功而已矣'.

38)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193~196쪽.

들이 있다하더라도 한 번 머리를 깎았다면 되놈이고 되놈은 곧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박지원은 자신을 下士라고 전제 한 뒤 "저들의 장관은 기와 조각에 있고 또 똥무더기에도 있다"고 하였다. 즉 기와 조각은 천하에 버리는 물건이지만 민간에서 담을 쌓을 때 사용하면 좋은 무늬가 만들어지고 똥이라는 것은 매우 더러운 물건이지만 이를 밭에 내면 훌륭한 거름이 되기 때문에 말똥을 줍는 자가 삼태기를 들고 말 뒤를 따라 다니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는 것이다.

또 벽돌의 이용방법, 온돌의 이용방법, 수레와 배 및 목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우리의 제도를 반성하고 청조 제도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지원의 주장은 虛僞意識을 타파하고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利用·厚生論 의 발로라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利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및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개방관에 기초한 발전된 과학 및 산업기술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내외적 차별 질서의 유지·강화라는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된 주자학 내지는 유학의 절대관과 폐쇄관을 비판·극복해야만 하는 전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으로 壤夷를 하려 한다면 먼저 中華의 법을 배워서 農工商을 막론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이 十을 하면 우리는 百을 하여 먼저 우리 民을 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초리를 만들어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충분히 매질한 연후에야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39]

이처럼 박지원은 한족 중심의 화이질서관 자체를 부정하고 평등관과 개방

39) 『燕巖集』卷 12,「熱河日記」, <馹迅隨筆> '故今之人 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樵 魯自耕蠶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焉 人十己百 先利吾民 使吾民制梃 而足以撻彼之堅甲利兵 然後謂中國無可觀可也'

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아 이전 보다 한층 진전된 사상적 견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40]

또한 박지원은 선비로서의 자기 위치와 책임을 각성하고 그를 새로이 설정함이 두드러져 보인다.[41] 士의 독서, 즉 講學·論道에 의해 그 은택이 온 세상에 미치고 그 功德은 길이 전승되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비의 講學에서 實用을 강조하면서 士의 학문이야말로 농업·공업·상업의 이치('農工賈之理')를 포섭해야 하며 明農·通商·惠工은 오직 士의 '實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선비의 학문적 관심이 농업과 상공업 모두에 걸침으로써 서울과 농촌에서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士가 사회적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政事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42]

> 옛적에는 民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士·農·工·賈라는 것이고 士의 업을 높게 여겼다. 그리고 農·工·商·賈의 일도 그 시초는 또한 성인이 듣고 본 것과 생각에서 나왔다. 대를 이으면서 傳習되어 각각 그 학술이 있었다.[43]

박지원은 이처럼 "士의 업을 높게 여기고" "農, 工, 商, 賈의 일"을 낮게 여긴 것은 "후세에 오랜 기간 동안 점차 성인이 실학을 떠난 까닭이며 옛적의 이른바 農家者流가 지금은 모두 일실되고 전해오지 않음이 애석하다"라 했다. 이는 이용후생의 실학이야말로 聖學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44] 나아가 그는 새로운 방법과 우수한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라면 비록 그것들이 오랑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

---

40) 김정호, 「燕巖 朴趾源의 改革思想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총론』22, 한국외교사학회, 2000.

41) 李佑成 교수는 『實學의 社會觀과 漢文學』에서 '士의 自己發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2) 유봉학, 『燕巖一派의 北學思想 硏究』, 일지사, 1995, 110~112쪽.

43) 『燕巖集』卷3, 『課農小抄』'古之爲民者四: 士農工賈 士之爲業尙矣. 農工商賈之事 其始亦出於聖人之耳目心思. 繼世傳習 莫不各有其學'.

44) 강일천, 「朴趾源 利用厚生 實學의 深層 內包와 그 現代的 指向」, 『한국실학연구』제1호, 한국실학학회, 1999.

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동료들과 공유한 北學論이다.

박지원은 이러한 실용·실리적 국가발전론으로서 첫째, 인간과 타 개체와의 동등성 논리를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바탕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변천, 변화의 자연현상 및 자연계 사물의 원리를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셋째, 평등관과 개방관에 기초한 외국의 발전된 문물 흡수와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45]

이렇게 볼 때 북학파가 전근대의 폐단을 摘視하고 근대성의 맹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덕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홍대용이 학문에 있어서 義理之學·經濟之學·詞章之學을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의리지학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과 박지원, 박제가가 이용후생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正德'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46] 이하에서는 그러한 정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살피고자 한다.

---

45) 김정호, 「燕巖 朴趾源의 改革思想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총론』22, 한국외교사학회, 2000.

46)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54~255쪽.

Ⅲ. 改革論의 구조와 성격

조선 사회가 신분제와 지주제를 매개로 운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러한 기축은 아래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실학과 북학론은 이러한 동요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의 동력 및 주체를 새롭게 구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학자와 북학자들은 신분제와 토지 및 농업문제를 다루었고 연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흔히 연암을 비롯한 북학파의 개혁론은 상공업 및 대외통상론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도회에서 상공업이 발전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농업문제가 전체 사회의 중심과제였고 북학파도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기류에서 상공업문제를 파악하고 난 후 농업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분제와 농업론 그리고 상공업 문제 순서로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社會身分制의 개혁

북학파의 학자들은 신분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박지원은 그의 많은 작품과 논설에서 양반들의 空理空論과 無爲徒食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는데 그의 책『熱河日記』에서 그는 “知를 서로 뽐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루한 습속으로서 유식한 이가 국내에 있을 때에도 양반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47]고 지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양반사대부들이 공리공담만 즐기고 실사를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사를 잘하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버릇까지 있음을 개탄하고 비판하였다.

---

47)『燕巖集』卷14,「熱河日記」‘遊中國者 有五妄 地閥相高 本是國俗之陋 有識之居國也 且恥言兩班況以外 藩土姓 反陸中州之奮族乎 比一 妄也’

특히「兩班傳」에서는 공리공론만 일삼아 독서하고 실사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양반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한편으로 士는 農·工·商의 실리를 탐구해야 하며 그의 시대에 농·공·상의 實業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士들이 이에 대한 연구로 뒷받침을 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 하였다. 48)

박지원이「兩班傳」에서 양반을 팔고 사는 장면을 그렸다는 것은 당시 양반을 크게 해학적으로 모멸하는 일로서 양반인 그에게는 감히 쓰기 어려운 소설이었다. 더구나 '양반은 개도 안 먹는다' 는 식으로 양반을 사려던 상민이 손을 내저으며 '양반이고 무엇이고 모두 싫다'고 도망가는 장면은 이미 양반계급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49) 특히 그는 관직을 가졌을 때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격렬하게 비판하여 심지어는 이를 '盜臣' 즉 '도둑'에 비유할 정도였다

> 오늘의 이른바 兩班이라 것은 옛날의 이른바 大夫士이고, 오늘의 이른바 好太守는 옛날의 이른바 盜臣이다.50)

또한 그는 「許生傳」에서는 정치적 현실 대응력을 상실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의리론을 중심축으로 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고수하며 정치권력을 완강하게 독점, 유지하였던 당시 정치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다음 부분은 「許生傳」의 초반부이다.

> 許生은 讀書를 좋아하여 부인이 남의 삯바느질을 하여 근근히 살아갔다. 하루는 부인이 매우 배가 고파 울면서 "당신은 한평생 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서 무엇 할 작정이요?" 하고 물었다. 허생은 웃으면서 "내 공부가 익숙하지 못하였소."했다. 부인이 "工匠(手工業者)이라도 할 수 있

48) 신용하, 『조선후기 實學派의 社會思想 硏究』, 지식산업사, 1998, 345~346쪽.
49) 김지용, 『朴趾源의 文學과 思想: 古典散策-燕巖의 作品世界』,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19쪽.
50)『燕巖集』 卷3, 「答金李謹書」 '今之所謂兩班 古之所謂大夫士 今之所謂好太守 古之所謂盜臣'.

지 않소?" 하고 말하자 許生은 "공장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겠소?" 했다. 부인이 다시 "商業이라도 할 수 있지 않소?" 하고 말하자 허생은 "상업은 밑천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했다. 부인이 화가 나서 꾸짖기를 "주야로 독서하더니 다만 '어떻게 하겠소'라는 말만 배웠구료, 工匠도 못한다, 商業도 못한다 하니 어째서 도적질은 못 하시나요?"51)

이 글에서 허생은 名分을 추구함에 비해 그의 아내는 實利를 추구하며 대립하게 되는데, 허생은 선비의 名分인 독서 때문에 집이 다 쓰러져가서 비바람을 막지 못하고 끼니를 굶어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모른척하며 오직 독서만 전념할 뿐인데 반해 부인은 身分(名分)에 얽매여 호구지책을 못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實利'면에서 질책하는 허생의 아내를 통해 허생의 名分을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이 양반문제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서얼차별 문제였다. 그가 절친하게 교유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덕무·박제가·유득공 등 서얼 출신의 인제가 많았다는 데서도 예견할 수 있는 바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본래 서얼차별이 없었는데 조선왕조 초기에 정도전이 서얼로 개국공신이 되었다가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죽은 후 徐選 등이 정도전에 보복하기 위해 庶孼禁錮法을 만들었고 姜希孟·安瑋 등이 『經國大典』에 서얼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이며 戊午士禍를 일으킨 핵심자인 유자광이 서얼이었으므로 이 서얼금고법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52)

서얼들이 禁錮法에 의하여 관직에도 등용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도 조상의 대를 이을 자격을 갖지 못하였던 현실을 비판하면서 서얼도 진실로 士族의 자제이므로 家和를 위해서도 이러한 극악한 차별제도를 폐지하여 인재등용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51) 『燕巖集』卷12, 「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居墨積洞 直抵南山下 井上有古杏樹 紫扉向樹而開 草屋數間 不蔽風雨 然許生好讀書 妻爲人縫刺以糊口. 一日 妻甚饑 泣曰 "子平生不赴擧 讀書何爲?" 許生笑曰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 生曰 "工未素學, 奈何?" 妻曰 "不有商乎?" 生曰 "商無本錢, 奈何?" 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 只學 '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52) 신용하,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 연구』, 지식산업사, 1998, 353~355쪽.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민 중에서 사와 농·공·상 사이의 신분적 구별을 전제한 상태에서 양반 내부의 차별만을 부정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그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늘이 인재를 내릴 때는 특별히 차별이 없었고... 성인들의 정치에는 士에 귀천이 없었다."[53]
>
> "대저 서얼이 正嫡과는 진실로 차등이 있지만 그 家勢로 보면 또한 士族이다."[54]
>
> "세대마다 높은 벼슬을 하여 문벌이 혁혁한데 다만 어미 겨레가 비천한 것으로써 그 고귀한 본종까지 멸시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55]

결국 그에게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은 신분제 자체의 부정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공노비와 관련된 언급도 남겨놓았다. 안의 현감으로 있을 때 안의현의 "시노 300명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배와 등에 열이 끓는 듯해서 30년 전에 앓던 속병이 다시 발작하였다."고 하여 비록 그가 공노비(寺奴婢)의 혁파를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노비의 충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처사를 고발하고 있다. 물론 이것 역시 사노비를 포함하는 노비 전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56]

홍대용은 앞서 이러한 신분제도를 '名分'으로 보아 부정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였고 四民制度는 '職分'으로 보아 긍정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이처럼 홍대용이 신분에 의해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 본위를 내세웠다면 박지원은 "士의 학문은 실로 농공상의 이치를 겸하고 그 세 가지 산업은 반드시 모두 士가 있어야 이루어진다"[57]고 하

---

53) 『燕巖集』 卷3, 「擬請疏通疏」, '天之降才 非爾殊也 … 聖人致治 士無貴賤:'.
54) 같은글 69쪽, "夫庶孼之與正嫡 誠有差等 而顧其家世 亦一士族".
55) 같은글 69쪽, '況國朝所謂庶孼 世有簪纓 門閥煇赫 則寧可以母族之卑徹 混賤其本宗'.
56) 김문용 외역 , 『한국인물유학사4』,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길사, 1996, 1588~1589쪽.
57) 『燕巖集』卷 16,「課農小抄」〈諸家總論〉, '士之學, 實兼包農工賈之理, 而三者之業, 必皆待士而後成'.

여 士·農·工·商의 四民의 관계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업관계로 파악하였다. 물론 이 분업을 횡적으로 평등한 분업이 아니라 '士'와 '農·工·商'. 사이에는 종적인 位階的 분업이었고 農·工·商은 실리를 연구하는 士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58]

박지원의 글 중에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士이다."[59]고 하여 사민을 모두 원래는 '士'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가 원칙적으로 인간의 평등과 모든 四民의 '士'로의 개편에 의한 양반신분제의 폐지를 궁극적 이상으로 삼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리공론만 일삼고 무위도식하는 세습적 양반은 폐지하되 實學과 農·工·商의 實理를 탐구하는 士는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四民 중에서 여전히 지도적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아 현실의 사회신분제도로서의 양반제도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폭 '개혁'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60]

2. 土地改革論과 農業經營論

박지원의 利用厚生論은 농업의 개선에 특히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농민문제 중에서 농민의 토지 소유 상실에 의한 소작농으로의 전락 및 가혹한 피착취와 농업생산 기술의 낙후성과 관련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었다.

북학파 인물 중에서 농업에 있어서 제도적인 면에 충실했던 인물이 홍대용이라면 박지원과 박제가는 토지제도의 문제보다는 농업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박제가에 이르러서는 산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61]

---

58)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31쪽.
59) 『燕巖集』卷 5, 『映帶亭贈墨』, 「答蒼厓」, '則自天子 達於庶人 皆士也'.
60) 신용하,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 硏究』, 지식산업사, 1998, 352쪽.
61) 김인규, 「北學派의 對外認識과 北學思想」, 『한국사상사학』12, 한국사상사학회, 1999.

박지원은 당시 만연된 土地兼倂에 의한 지주소작제도의 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현재 民戶 중에서 전토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가는 10에 1, 2도 안되므로 公賦가 10분의 1이고 私賦가 10분의 5이니 公私의 부세가 10분의 6이나 된다.62)

> 비록 이들 농민들이 경작법을 훤히 알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의 1결 2부의 토지에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고 그들 자신이 실제로 먹는 것으로 남는 것은 33석의 태반의 수량도 또한 감해지니 생각건대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겠으며 끝내는 유민으로 굶어 죽지 아니 하겠는가. 63)

박지원은 당시 실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井田制을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으나 溝洫을 지을 수 없게 된 오늘날에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井田의 이념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균전론을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박지원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郡守로서 다스리던 沔川郡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64)

> a. 元帳田摠五千八百九十六結四負三束・・・・・・ 有戶四千一百三十九 摠口一 萬三天五百有八・・・・・・ 得時起實摠二千八百二十四結九十二負・・・・・ 臣以境內田結 排北郡中戶口・・・・・・ 盖戶非五口 則無以糞田力作 不能力作 則無以相養以生 所以戶必五口然後 始責其爲農也 故每戶以結分排.

---

62) 『燕巖集』卷 16, 「限民名田議」, '況見戶之中 有田自耕者 十無一二 而公賦什一 私稅分半 並計公私則 已爲十六'.
63) 『燕巖集』卷 16,「限民名田議」, '雖使斯民者 深曉農理 勤而不惰 盡治其一結二負之田 其所實餘自食 又減太半於三十三石之數 顧何以仰事俯育 不終底於流離轉殍乎'.
64)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7, 598~600쪽.

b. 況一境之內 不能無士大夫焉 不能無世嫡及有親有蔭之類 在所當厚者則 平民所均又將不滿一結.

c. 誠立爲限制曰 自某年某月以後 多此限者 無得有加 其在令前者 雖連阡跨陌不問也 其子孫有支庶而分之者聽 其或蔭不以實 及令後加占過限者 民發之與民 官發之沒官 如此 不數十年 而國中之田可均.[65]

연암의 均田論은 民의 土地소유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民戶에 농지를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농업생산에서의 최저의 單位戶를 설정하여 그것을 基準戶로 삼고, 그 호에 대하여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 고을의 農地는 量案上의 田摠이 5,896結 4負 3束, 時起結이 2,824結 92負였으며, 民戶는 戶가 4,139, 口가 13,508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농지 가운데서도 時起結만을 배분대상으로 하되 受田할 수 있는 民戶를 5人가족의 戶로 보고 이를 기준호로 삼았다.

이는 이만한 人力을 갖춘 농가가 아니면 농업생산을 집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5人 이하 가족의 民戶가 많았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그 民戶를 5인 이상의 호가 되게 編戶하고 自然戶에 대하여는 기준 이하로 분급할 것을 구상하였다.(자료 a)

또한 연암의 均田論은 민호의 노동력에 따라 토지분급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농지를 農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호에 분급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반사대부 계급에게는 일반 농민보다 厚給하도록 하고 있었다.(자료 b)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일정한 시기 동안 전국의 농지면적과 호구수를 조사하여 한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을 산출해 내고 누구든지 그 이상의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限田制를 주장하였다.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자손에게 분급하거나 팔기를 수십 년간 기다리면 자연 균등해지리라는 것이었다.(자료 c) 이는 균전론의 원리와 한전론의 방법을 종

65) 『課農小抄』,「限民名田議」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박지원이 土地兼倂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토지소유를 제한 한 후라야 兼倂者가 없어지고 겸병자가 없어진 후에라야 산업이 균등하게 될 것이고, 산업이 균등하게 된 후에라야 백성들이 모두 안정되어 각기 제 토지를 경작하게 되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난 후에라야 농사를 권면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66]

박지원이 제기한 '限田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겸병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상한 이상의 새로운 토지매입은 엄금한다. 둘째, 이전에 사들인 토지는 그것이 상한선을 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문에 붙이고 이 법이 실행되기 이전이라면 여러 자식들에게의 분할상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허용한다. 셋째,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의 토지는 몰수한다.[67]

박지원은 수대를 지켜보아도 그 중에 父祖의 田地를 능히 지켜서 타인에게 팔지 않는 자는 10의 5 정도이고 매년 토지를 나누어 파는 자는 10의 7, 8이어서 토지집중이 있는 것이며 한전법을 시행하면 이 경향이 도리어 토지소유의 균등화 쪽으로 작용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결국 토지소유의 균등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68]

연암이 이러한 토지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유형원은 『磻溪隧錄』에서 均田論을 제시하였고 이익은 『星湖僿說』에서 토지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限田

---

66) 『燕巖集』卷 16,「限民名田議」, "限田而後 兼并者息 兼并者息然後 産業均 産業均然後 民皆土著 各耕其地而勤惰著矣 勤惰著而後 農可勸而民可訓矣.
67) 김문용 외역 , 『韓國人物儒學史4』,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길사, 1996, 1590~1591쪽.
68) 신용하,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 硏究』, 지식산업사, 1998, 277쪽.

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토지개혁론은 당시의 사회체제로 보아 이상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여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연암의 토지개혁론은 당시 지배세력인 양반계층의 지주로서의 권익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농민의 토지 소유를 확대해 가는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라는 데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限田制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민생활의 개선을 주장하였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일정한 문제점과 한계도 갖고 있었다.

限田制 토지개혁안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限田制는 토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토지 겸병을 법적으로 엄금함으로써 균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둘째, 토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것이 천백을 連하였어도 그를 매입하거나 몰수하지 않고 상속제도에 의하여 또는 부호의 자손의 몰락에 의하여 상한 이하로 축소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미온적인 개혁안이다.

셋째, 양반층 즉 士族에 대한 처리 문제가 모호하다. 이는 신분제를 전제로 차등을 두어 분배할 것인지, 사대부와 농민이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할 것인지 등의 자세한 생각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지주제도의 폐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의 상한은 으레 자작지 면적의 범위를 초과할 것이 상정되므로 이 상한에 접근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주제도를 온존시켜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상한의 양적 규모와 수준을 밝히지 않은 점과 타인의 이름을 빌어 상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점 등에서 박지원의 개혁안은 부강자의 권세와 강대함을 크게 의식하여 그에 타협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려 한 온건한 토지 개혁안임을 알 수 있다.[69]

그리고 사실상 박지원은 토지의 분배보다 농업기술의 혁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課農小抄』에서 농법을 발전시킨다는 전제 아래, 영농방법의 혁신을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량, 노동력의 절약, 농기구의 개량과

69) 신용하,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 硏究』, 지식산업사, 1998, 280쪽.

분양법의 개선, 관개수리시설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농법을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영농방법의 혁신을 위해 주장한 개선법으로 첫째, 地力을 잘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農地制度 곧 경종법을 개량해야 한다고 믿고 그 농법으로 區田法과 代田法을 검토하고 이를 권장하였다. 둘째, 노동력의 관리와 절약을 통한 영농방법의 합리화를 모색하려 하였다. 셋째. 영농의 합리화를 위해 노동력 절감의 한 방법으로 농기구 개량을 제안하였다. 넷째, 농작물 소출의 과다는 퇴비의 적절한 투여 여하에 의하여 달려 있다고 보고 분양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관개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우리의 수리시설의 부실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70]

3. 商工業 발전론과 海外貿易論

북학파 실학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공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玉匣夜話」에서 기술한 허생은 박지원이 그의 이상을 기탁한 화신이다. 허생은 처음에는 양반이 되기 위해 7년 동안 꾸준히 글을 읽었으나 나중에 아무 일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곤궁함에 빠진다. 아내의 책망에 정신을 차린 그는 결연히 상업에 투신하며 富의 힘에 의하여 "함께 부귀를 누리는" 이상국을 세운다. 박지원의 시야에 물질적 富는 일반적인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사회를 개조하는 기반과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71]

그는 양반 사회의 부패와 몰락을 폭로하고 비판하면서 '부자'를 미래 사회의 대표로 삼았다. 또한 그는 經世濟民, 富國强兵을 도모했으며 그 기본 방향은 바로 상공업을 발전시켜 이용후생의 물질 수단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였

70)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10~211쪽.
71) 강일천, 「朴趾源 利用厚生 實學의 深層 內包와 그 現代的 指向」, 『한국실학연구』 제1호, 한국실학학회, 1999.

다. 다른 한편 상업 활동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시선을 돌려 상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풀숲에서 뱀을 만난 듯이 (行邁草蛇)” 사회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지원은 工·商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누구보다도 이의 개발과 工匠 및 商人의 지위 향상을 강조하였다. 당시 工人과 商人을 천시하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공인과 상인을 존중하여 農·工·商의 횡적 평등 및 균형적 발전과 함께 당시 성장하는 상업자본의 성장과 상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러한 상업의 활성화는 바로 수레와 배 등 교통수단의 혁신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는 『熱河日記』에서 각종 車制를 연구하고 그 편리함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며 그 제작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가 무엇보다도 수레의 이용을 주장한 것은 재화를 유통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이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하므로 모든 물건이 제 바닥에서 나서 제 바닥에서 소모된다.”[72]고도 하였다.

즉, 당시 조선에서는 수레와 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자가 유통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비되거나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의 중요성은 쓸모없는 물건을 유통하여 쓸모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들이 편재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 영남의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의 백성들은 아가위를 절여서 장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푼을 한다.[73]

---

72) 『燕巖集』卷 14,「熱河日記」, <玉匣夜話> ‘朝鮮 舟不通外國 車不行域中,故百物 生于其中 消右其中’.

73) 『燕巖集』卷 12,「熱河日記」, <馹迅隨筆> ‘嶺南之兒 不識 關東之民 沈樝代醬 西北之人 不辨柹柑 沿海之地 以鯖糞田 而一或至京 一 掬一文’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유통을 하지 않는데 기인하며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배와 수레가 전국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수레와 배를 이용한 상품의 유통은 물가를 안정시키며 전국적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농업과 수공업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력의 피폐가 사치 때문이 아니고 물건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에 의한 생산 자극설을 제안하면서 절약만을 미덕으로 삼고 있던 경제발전의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銀이 모든 재화 중 으뜸가는 화폐이고 천하에 寶具라고 생각하였다. 백성들이 동전에만 익숙해져서 銀은 단순한 물품으로 취급되고 화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銀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화를 주조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통화량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동전을 수입·유통하는 정부당국의 결정에 반대하며 惡貨인 중국 동전을 수입해서 유통시킬 경우 화폐질서가 혼란할 뿐 아니라 국내의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74)

무역에 있어서도 연암은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 연결시켜 해외통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쇄국정책에 따른 종래의 극히 한정된 무역방식이 密貿易과 중간상인의 폭리를 조장할 따름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적극 통상론을 펼친다면 국내의 산업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문명수준의 향상과 국제정세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대외무역관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상은 그 후 후배 실학자들은 물론이고 초기 개화사상가들에게 전승되었다. 특히 그의 후배 박제가는 연암의 영향을 받아 상업론과 해외 통상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시 조선이 낙후한 것은 재화가 유통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고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74) 강용수, 「朝鮮後期 北學派의 자유무역사상 연구」, 『산업경제연구』 15,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통상하는 길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먼저 중국과 통상한 다음 차츰 국력을 키워 다른 나라들과도 통상해야 한다는 점진적인 방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75]

75)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17~221쪽.

Ⅳ. 맺 음 말

북학파는 당시 조선의 여러 가지 내재적인 모순과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한 탈출구를 北學에서 찾았다. 이러한 북학사상이 형성된 계기는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당시 사변적 학문경향에 대한 반성과 人物性同論을 넘어서 人物均論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들 수 있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당시에 유입된 서양과학에 대한 이해와 燕行을 통한 청의 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들 수 있다. 76)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혁사상은 박지원의 사회 경제 사상에 대한 개혁, 특히 신분제와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는 신분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양반이 지식인(讀書人)으로서 산업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無爲徒食하던 양반들의 세태를 강력히 풍자·비판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토지겸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限田制의 실시를 주장하고 수공업의 발달과 국내외 통상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이것들은 당시의 사회 모순을 성실히 반영하고 그것을 진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77)

박지원은 이처럼 스스로도 양반이면서 양반에게 각성을 요구할 줄 알았기에 그가 진정한 실학자로서 개혁정치가로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의 주장이 四民 중에서 士와 農·工·商 사이의 신분적 구별을 전제한 상태에서 士 내부의 차별만을 부정하는 즉, 신분제도 자체의 부정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점에서는 신분적·시대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양반들이 유교적인 四民觀에 있어서 士란 農工商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讀書와 修養에 힘쓰는 階層으로 여겨왔으며

76)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56쪽.
77) 김문용 외역 , 『韓國人物儒學史4』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길사, 1996. 1593쪽.

성리학적 관념론에만 매달려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그의 사상은 매우 파격적이며 근대 지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학론자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아직 중국이 서양을 추월하고 있던 중국의 최전성기였다. 반면에 조선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낙후된 후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中華의 명을 멸망시킨 오랑캐이고 중화는 조선에 남아 있을 뿐이라는 華夷論에 의해 조선은 애써 선진문명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北伐論이 지배적이었던 18세기 후반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연암을 비롯한 북학론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여러 주장 가운데 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날로 첨예해지는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여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부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용후생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연암이 다른 실학자들과 다른 점은 實用과 實踐을 중시하고 농공상의 각 직업을 동등하게 대하여 그 생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암의 실학, 즉 북학파의 실학은 유가의 사상을 핵심으로 여기는 실학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학파의 학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 즉, 청나라의 이용후생과 관련된 선진 기술을 배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은 전통적이 '華夷論'을 비판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실상과 부합되는 것을 인식하여 청조의 선진적인 문화를 정확히 소개하였다. 이처럼 북학파의 이용후생론은 민족사에 있어서의 전근대적인 제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정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그 긍정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78]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기득권층의 무감각 등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수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북학의 논리가 당시 현실에 수용되지 못

78) 왕정요, 「18C 조선 "利用厚生" 학설과 청대 중국 -『熱河日記』 연구 기-」, 『한국실학연구』 제1권, 한국실학학회, 1999.

한 것은 우리 민족이 당시 서구의 근대화의 조류에 보조를 같이 할 수 없었던 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19세기 후반에 개화파가 등장하여 근대화를 추구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서양의 군함이 우리의 영해를 유린하기 시작한 다음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 있어서의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는 이미 북학의 실패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79]

북학사상이 대두되었던 시대가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는 改革이라는 대내적 과제와 開放이라는 대외적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시대의 遺物을 되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9)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258쪽.

참고문헌

1. 자료

『燕巖集』, 돌베게, 2007.

『燕巖集』,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4.

『過庭錄』, 돌베게, 1998.

『熱河日記』, 보리, 2004.

임영택, 이우성『李朝漢文短篇集』, 一潮閣, 1990.

2. 저 서

김용섭, 『(증보판)조선후기 農業史연구Ⅰ』, 지식산업사, 1995.

이태진 편, 『(개정판)조선시대 政治史의 재조명』, 태학사, 2003.

정옥자, 『朝鮮後期 中華思想 硏究』, 일지사, 2001.

김지용, 『朴趾源의 文學과 思想: 古典散策-燕巖의 作品世界』,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김인규, 『北學思想의 哲學的 基盤과 近代的 性格』, 다운샘, 2000.

김태준, 『위대한 한국인5-洪大容』, 한길사, 1998.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돌베게, 1998.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6.

류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硏究』, 일지사, 1995.

김문용 외역, 『韓國人物儒學史4』,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길사, 1996.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역사비평사, 2006.

장덕순, 『韓國文學史』, 동화문화사, 1997.

박충석・유근호 공저, 『朝鮮朝의 政治思想』, 평화출판사, 1980.

신용하, 『朝鮮後期 實學派의 社會思想 연구』, 지식산업사, 19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종주, 『北學派의 認識과 文學 - 相對主義的 시각과 역설의 미학』, 태학사, 2001.
歷史學會編, 『實學硏究入門』, 一潮閣, 1990.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7, 598~600쪽.

3. 논 문

박성순, 「朝鮮後期 北學思想硏究 傾向에 대한 일고찰」, 『史學志』37, 단국사학회, 2005.
안재순, 「朝鮮後期 實學의 主體性 問題 -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의 북학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40, 동양철학연구회, 2004.
김인규, 「利用厚生論의 理論的 基盤과 展開樣相」, 『한국사상과 문화』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김정호, 「燕巖 朴趾源의 改革思想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총론』22, 한국외교사학회, 2000.
강일천, 「朴趾源 利用厚生 實學의 深層 內包와 그 現代的 指向」, 『한국실학연구』제1호, 한국실학학회, 1999.
김정호, 「燕巖 朴趾源의 改革思想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2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강용수, 「朝鮮後期 北學派의 自由貿易思想 硏究」, 『산업경제연구』15,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윤순갑, 「朝鮮朝後期 實學思想의 政治理念的 構造」, 『한국동북아논총』19, 한국동북아학회, 2001.
김익한, 「燕巖관계자료 4부: 朴燕巖의 實學思想」, 『한국한문학연구』11, 한국한문학회, 1988.
유봉학,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 - 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8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2.

왕정요, 「18C 조선 "利用厚生" 학설과 청대 중국 -『熱河日記』 연구기-」, 『한국실학연구』 제1권, 한국실학학회, 1999.

김인규, 「北學派의 對外認識과 北學思想」, 『한국사상사학』12, 한국사상사학회, 1999.

김일만, 「燕巖 朴趾源의 社會思想과 社會改革論」, 『부산정치학회보』 제4호, 21세기정치학회, 1994.

신연우,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硏究」, 『연행록연구총서』3, 한국전통문예연구소, 2002.

정양완, 「朴齊家의 生涯에 영향을 미친 몇몇 분에 대하여」, 誠信女子大學校 硏究論文集 15, 198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58055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윤정희 한문: 尹貞熙 영문: yun jung hi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금호아파트 302동 1207호				
연락처	010-5605-9780 E-MAIL: minju08@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燕巖 朴趾源의 北學論과 개혁적 성격 영문 : Yeonam Bak Ji-Won's Bukhakron and Innovative Personali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0년 2월 8 일

저작자: 윤 정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